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이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해
남에게 상처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15일)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사진은 조계사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법어를 내리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중생 苦 보듬은 봉축…희망·치유 법석으로

5월 19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서 봉행

코로나 예방 위해 최소만 참석
노동자·미얀마유학생 등 헌등
정관계 인사 대거 참석해 눈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법요식 규모는 대폭 축소됐지만,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겨 고통받는 중생,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대국민 치유의 법석으로 마련돼 감동을 전했다.

특히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5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 불기 2565년 봉축법요식은 역대 최소 규모 임에도,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는 본연의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 컸다는 평가다.

올해 법요식에는 코로나 시국 방역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해 온 방역의료진과 쿠데타 발발 후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 재한유학생,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유가족, 이주민 노동자 대표, 쿠팡노동자 등 소외된 약자들을 초청해 한국불교계의 지지와 격려를 전했다.

공식 행사는 도량결계와 육법공양,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친다는 의미의 명고와 성불을 서원하는 명종을 시작으로 개회한데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관불 및 유민우·이주현 어린이(조계사어린이법회)의 마정수기, 헌촉·헌향·헌화·헌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축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축사,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처님전에 초와 향, 꽃과 차를 올리는 의식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들이 초청돼 대표로 공양을 올려, 중생과 함께하는 희망과 치유의 법석으로 화했다. 헤이만 재한미얀마청년대표가 희망의 등을, 김효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응급실 수간호가 치유의 등을 올렸으며 우다이 라야 이주노동자 위원장과 이대로 청주방송국 故이재학 PD 유가족,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 지부장, 정진영 쿠팡노동자 지부장이 헌화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과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는 봉축법어에서 ""코로나 질병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자연과 인류(人類)는 상생(相生)하는 존재"라며 "이 자연은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원(祈願)하며 물려준 것이며, 또한 우리도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穩全)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불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한데 이어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조금 덜 소비하고 약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도 현 사태를 야기한 군부를 향해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계에 재차 깊은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연등회를 취소, 축소하고 법요식도 최소규모로 봉행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신 불교계의 희생과 양보에 존경을 표한다. 방역을 위하여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면서도, 스님들은 산문을 활짝 열어 지친 국민들을 품어주셨다"고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고 이롭게 해주는 이타행과 생명존중 사상은 불교의 오랜 지혜인 만큼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이 더 넓고 크게 나눠질 수 있도록 불교계가 축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음을 모아 밝혀주시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은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희망과 치유의 빛'이고 '화합과 평등의 빛'"이라며 "부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이원욱 정각회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이낙연·정세균 前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기2565(2021)년도 불자대상' 수상자인 (사)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과 역사학자 한금순 씨,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미얀마유학생 二重苦 보도에 금융산업재단 지원 나선다

5월 28일 재한 미얀유학생연합회와 협약

신청 학생 월 30만원 지원해
유학생들 경제적인 고통알린
本紙 보도가 계기·후속 성과
"생활가능…현대불교에 감사"

미얀마 군부쿠데타 여파로 한국에서 심리적·경제적 고통으로 이중고를 겪던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았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재한 미얀마유학생을 위한 생활비 지원에 나선 것. 특히 이번 지원은 미얀마유학생들의 고충을 취재·보도한 본지 기사 '재한 미얀마유학생들, 쿠데타 여파에 이중고'(本紙 1334호 참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신상훈)은 5월 25일 이사회에서 재한미얀마유학생들을 위한 기초생계비를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5월 28일에는 서민금융진흥재단,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측은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현재 미얀마유학생 규모를 950여명 가량으로 보고, 1인당 매월 30만원씩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24억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지원은 연합회 소속 학생들 중 생계와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의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대학원 수료 중이거나 코로나 이후 휴학한 학생들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비자 등을 첨부해 신청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미얀마유학생 지원은 지난 3월 31일 보도된 본지 기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본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본국 금융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가족지원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해 온 유학생들이 학업은 물론, 생계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심층보도했다. 특히 에에띤 양곤외대 한국어과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돼 활동 중인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일부 유학생들은 학업 지속은 커녕 미얀마 관련 통번역 일거리가 급감하면서 최소한의 일자리도 찾을 수 없게 돼 생활 자체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유학생들의 고충을 드러낸 해당 보도 이후 본지에는 직·간접적으로 유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적잖은 반향이 일기도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역시 해당 보도를 계기로 본지에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유학생들을 향한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에 져윈테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장과 최재희 양곤대 박사과정 학생이 4월 말경 재단을 방문해 현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재단 측은 내부논의를 거쳐 미얀마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초생활비 형태로 유학생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미얀마 현지 상황이 점점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희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국장은 "미얀마를 포함한 국내외 사회공헌 방안을 모색하던 중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통해 미얀마 유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됐다"며 "장학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지만 미얀마유학생연합회 측과 만나 사정을 들어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기초생계비 지원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1인당 30만원씩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얀마 쿠데타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져윈테 연합회장은 "미얀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현대불교신문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다음 주 휴간합니다.

